

남북 두 정상 '평화의 악수' 빛고을서 재현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16-20일 광주시청 1층

광주 서구문화원, 시민참여 프로젝트 마련
신창우·주홍 등 미디어아트·퍼포먼스 다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뜨거움을 기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판문점 내 남북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평화 무드는 아직까지도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눴던 '평화의 악수'를 재현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16-20일 광주시청 1층 로비 특별전시공간에서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를 주제로 한 전시를 마련한다. 서구문화원은 1948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분단 70년을 맞은 지금, 한반도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휴전선을 넘어 남북이 교류하는 등 새 역사를 쓰자는 취지에서 이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를 대표하는 오브제는 바로 '철조망'이다. 가로 12m, 세로 9m, 높이 4m의 전시 공간에서 휴전선, 군사분계선, 군사 장비 등을 재현해 연출한다. 큐레이터들의 자문을 받아 휴전선

을 재현하고,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 미디어 작품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휴전선 철조망 뒤편에 설치된 흰 천에 빔프로젝트로 선보일 계획이다. 서구문화원 측은 당초 휴전선의 실제 폐철조망을 구해 작품을 제작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평화의 악수'다.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이뤄지며, 휴전선 앞에서 시민들이 판문점의 평화의 악수와 같은 모습으로 참여하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다시 영상 작품에 반영해 전시하는 형식이다. 이들 사진을 모아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나간다.

프로젝트에는 신창우, 주홍 작가도 재능기부로 힘을 보탠다.

미디어아티스트인 신창우 작가는 '흔적-이산가족'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 방식으로, 시민(관람자)의 동작을 따라 남북 이산가족의 장면을 드러내는 형태로 연출한다. 이산가족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장면은 남북분단의 적나라한 흔적을 보여주게 된다.

샌드에니메이션 아티스트이자 치유예술가로서 활동하는 주홍 작가는 16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로비 특별전시공간 앞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프로젝트가상이미지.

를 한다. 흰 천을 펴고 스폰지에 먹물을 묻혀 탁본하듯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악수 장면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북이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판문점 선언의 일부를 글씨로 쓴다.

어시스턴트는 조소연과 오아라다. 조소연은 2015 광주FISU 컨퍼런스 실무를 맡았고 나인갤러리 큐레이터를 지냈다. 오아라다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으며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근무했다. (전시문의 010-5680-2001) /정겨울기자 winter@kdaily.com

낡아 버려진 것들에 문화를 더하다

'REPLAY_박연숙, 성현지, 조민서' 3인展
30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 제1기획전시실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recycle)에 '업그레이드'(upgrade)란 단어를 합쳐 만든 '업사이클'(upcycle)은 더 멋있고 의미있게 재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업사이클'을 활용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자.

화순 다산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미술관 제1기획전시실에서 2018 업사이클 폴라보전 'REPLAY_박연숙, 성현지, 조민서' 3인전을 연다. 이 전시는 전남도와 화순군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화순 경북미술문화원에서 공간연계형 창작지원사업의 작가로 활동 중이다.

박연숙 작가는 벽면에 전기 회로와 같은 연결 상태를 차용해, 광주를 누비는 자신의 활동 거점 지도를 구조적으로 참신하게 다룬다. 작가는 활동하는 9개의 거점지를 벽면 회로에 오려 낸 컴퓨터의 페 부품을 장착해 표현했고, 여기에 각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소리를 담았다.

성현지 작가는 꿈과 현실의 세계를 오가는 매개체가 되는 과정을 작가가 상상하는 기발한 방식의 통로로 제시한다. 수면의 상태와 잠에서 깬 현실을 오가는 인물은 두 세계를 모험하는 '투



화순 다산미술관의 'REPLAY' 전시 전경.

어리스트'가 된다. 작가는 버려진 창을 활용해, 창을 통해 분할된 두 세계와 그 경계에 있는 인물의 형상을 만나게 한다. 버튼을 찾아 누르면 두 세계를 모험하는 진정해 '투어리스트'를 경험하게 된다.

조민서 작가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프리카 조각상의 아몬드형 눈매를 가진 여인에 자

신을 투영하듯 표현했다. 그는 지금은 폐교가 된 학교 교실의 버려진 창과 의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왔다. 그가 드로잉 한 세상을 자유롭게 나는 금속의 나비는 빔방울이 맺힌 창끝에, 하늘에, 풀숲에, 오래된 고목으로 한평생 쉬를 주던 나무였다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제 역할을 다 하는 의자가 된다. (문의 061-371-3443) /정겨울기자 winter@kdaily.com

한가하게 놀기만하는 나태한 제군들에게 알리노니

장희구 박사 (287)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賀吳仲學新格生員(하오중거신격생원)
불우한 정극인

"만인들이여! 저 사람 행실을 본받아라!" 하면서 계몽적 제시적으로 지시하는 시문 흔적이 많았다. 이것이 몽매한 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유교적 교육 방침이었다. 시인의 주변 인물 중에 생원 시험에 합격했던 젊은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만인에게 귀감이 되도록 알려려는 시인의 우렁찬 함성 한 마디를 듣는 듯하다. '뛰어난 인재들을 망라해 임금 은혜가 내리고, 신동을 꾸짖으니 천하 아이들 따라서 움직였다'면서 울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뛰어난 인재 중에 임금님 은혜 내리 신동을 꾸짖으니 천하 아이 움직이네 한가한 제군들이여! 오군 행보 본받으라. 網羅英俊注恩波 訶罵天童動萬家 吳生步望如何 爲報閑遊諸懶輩 吳生地步望如何 吳生步望如何 吳生地步望如何



면 저기가 움직인다는 엉뚱한 대답을 해 본다. 뛰어난 인재들 망라해 임

'한가하게 놀기만 하는 나태한 제군들에게 알리노니' (賀吳仲學新格生員)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불우한(不憂軒) 정극인(丁克仁·1401-1481)으로 조선 전기의 학자다. 1437년 세종이 흥천사를 중건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일으키자 태학생을 이끌고 부당함을 항소하다가 왕의 진노를 사 복도로 귀양을 갔다. 그 뒤 풀려나 태인에 거처하며 집 이름을 '불우한'이라고 지었다.

금님의 은혜 내려지면서, 신동을 꾸짖으니 천하의 아이들 따라 움직인다는 시상이다. 엉뚱한 질문이다. 기둥을 치면 들보가 움직이는 현상 등은 상호의 연결고리와 맞물리게 된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뛰어난 인재들 망라해 임금 은혜 내리고 / 신동을 꾸짖으니 천하 아이들 따라 움직이네 // 한가하게 놀기만 한 나태한 제군들에게 알리노니 / 학생 오군의 처지와 행보를 본받음이 어떨 지]라는 시상이다.

화자는 서정적 지향세계에 의한 한마디 고인(苦言)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겠다. '한가하게 놀기만 하는 제군들에게 알리노니, 학생 오군 처지와 행보를 본받음이 어떨지는'라는 의문의 꼬리로 말문을 달는다. 여운이자 여백의 아름다움이다. 똑부러지게 말문을 달게 되면 순쉬운 결론 때문에 도리어 앙갚음이 돼 개운치 못했던 경우를 생각할 일이다.

위 시제는 [오중거가 새로 생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로 번역된다. 시적 상관자인 오중거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시인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친지이거나 잔잔한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후진일 것으로 추측은 된다. 처음으로 생원에 합격하면 어찌도 으스스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자와 어구
網羅: 망라하다. 英俊: 뛰어난 인재. 注恩波: 은혜의 파도 내리다. 訶罵: 꾸짖다. 天童: 신동. 動萬家: 만인들이 움직이다. // 爲報: 알리고자 하다. 閑遊: 한가하게 놀다. 諸懶輩: 나태한 모든 이들. 吳生: 학생 오군. 吳生地: 오중거 학생. 地步: 처지와 행보. 望如何: 어찌 바라지 않으리요.
/시조시인·문학평론가 새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시인은 생원에 합격한 것도 임금님의 은택이라는 시적 구성에 이어, 여기를 채찍하

여수 진남문예회관 '인간 그리고 자연의 어울림'展

오늘부터 지역 작가 10인 서양화 전시

섭, 박동화, 박치호, 손정선, 심은경, 양수균, 정정복 작가 등이 참여한다.

서양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여수 진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작품 감상에 더해 장르와 기법, 구상과 표현 등 서양화만의 매력을 찾아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여수 진남문예회관은 15일부터 29일까지 '인간 그리고 자연의 어울림'전을 연다.

관람객들이 작가와 예술철학과 미술세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가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된다. /여수=김전선기자

이 전시에는 지역 작가 10인의 서양화 50점을 감상할 수 있다. 권진용, 김시형, 김옥진, 문경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010-6834-7400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 3층, 38평, 8400만원
- 7층, 53평, 1억1400만원
-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투자자모심

1억원 투자시
월150만원지급!

오 천 경 매
010-3605-5000

급매물리스트

급매전문



[상가빌딩]

- ▶ 광주 남구 봉선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대로변 횡단보도 앞 상업지 대지700㎡ 4층건물1,1000㎡ 앞면35미터 1층점포6칸 유동인구많은 급매가34억 (월세용최적 및 개별분양도 가능)
- ▶ 광주 남구 백운광장 대지 530㎡ 5층건물 사옥, 병원원 최적 급매21억9,000
- ▶ 광주 동구 지산동[지산유원지 최고요지] 대지505㎡ 2층 건물 단골 고객 엄청 많은 주차15대 급매10억7,000(3.3당700)
- ▶ 대인동 2,300세대입구 대지332㎡6층 급매13억

[토지]

- 1) 곡성 옥과 도로접 계획관리 1,100㎡(3.3당30만원)
- ***중류별 금액별 매물을 다양보유하고 있습니다
- 맞춤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판매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무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